

【붙임3】

## 자기소개서

|     |  |
|-----|--|
| 소 속 |  |
| 직 위 |  |
| 성 명 |  |

# 자기소개서

|     |  |     |  |     |  |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

## □ 인생의 묘미는 안 되는 데 있다

너도나도 마산 진주 등 도시 학교로 유학을 떠나던 시절, 1977년 나는 형편상 고향의 **의령중합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매년 미달학교란 오명에 열등생으로 손가락질 받는 반항기 넘치는 친구들과 어울려 학교생활을 했다. 그래도 나는 한 가닥 오기로 학교 수업은 빠지지 않았고, 재수 끝에 대학에 합격했다. 사고뭉치 친구들은 자기 일처럼 자랑스러워했다. “우리들 속에서 너 같은 애가 나와서 통쾌해.” 문제아란 편견에 억눌린 열등감의 반작용인 듯 했다. 나도 미달학교가 자랑이 될 줄이야.

대학 졸업 즈음에 신문 광고를 보고 멀리 충남 대덕군 소재 **중일고등학교**에 지원하여 중국어와 한문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 학교는 그 후로 대전시에 편입되었지만 내가 상상하던 그런 학교가 아니었다. 대전의 모든 학교에 다 떨어지고 오갈 데 없이 뒷골목에 방치된 아이들의 집합소 그 자체였다. 몇몇 동료는 다른 학교로 떠났다.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런 내게 이사장님과 교장 선생님께서 손을 내미셨다. “뛰어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어렵고 힘든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정말 뜻있는 교육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사장님도 평생 모은 재산을 이 아이들을 위해 쾌척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로부터 33년을 내리 한 학교에서 교육 외길을 지키며 숭한 난관을 만났지만 말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얻었다. 종종 “인생의 묘미는 안 되는 데 있다.”라고 하시던 2대 교장선생님의 가르침은 불만스런 현실과 실의를 마주할 때마다 용기와 힘이 되어 주었다.

## □ 학교 업무의 리베로가 되다

나는 언제부터가 개교 원년 멤버라는 일종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담당 업무 영역을 초월하려고 노력했다. 또 담당 교과가 소위 “주요 과목”이 아니라서 보충수업이 없었지만, 퇴근은 항상 늦게 했다. 일요일에도 학교에서 시간을 보낸 날이 많았다. 자연이 시간 여유가 있어서 학교의 일을 많이 했고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가끔 설립자께서 휴일에 내교하시어 마주치면 “**핵교 종(從)인 줄 알겠어, 가 쉬어!**”하시면서 하룻길에 당신 차로 굳이 시내 하숙집까지 태워다주고 가시곤 했다.

## □ 정원 확보의 해묵은 난제를 해결하다

학교는 개교 이듬해부터 대전 편입과 동시에 특수지고(교육 여건 미비로 시교육청 연합선발에서 제외시킨 학교)로 지정되어 정원 확보에 골머리를 썩었다. 개교 10년차 되던 해에 나는 교무기획 담당자로 신입생업무도 맡았었는데 과감하게 교장 선생님께 전형일정을 당겨 교육청 연합선발 마감 날짜 하루 전에 합격자 발표를 하자고 건의했다. 그러려면 일정상 하룻밤 사이에 전형작업을 마쳐야 가능한 일인데 당시는 계산기로 일일이 수작업을 해왔었다. 필적 뛰는 교장선생님을 설득하기 위해 당시 흔치 않은 노트북 컴퓨터로 교장실에서 전형과정을 시연해 보여 드렸다. 그렇게 승낙을 받고 교육청 승인을 득해 전형 계획을 배포하였다. 다들 중일고가 악수를 두었다고 크게 염려했지만 막상 결과는 모집 정원의 1.7배가 몰렸다. 이 사건 이후로는 정원 확보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 □ 교원의 정보화 마인드를 촉발시키다

1998년 개교 10주년이 되던 해, 나는 상담부장 교사였지만, 기념식에 개교 10년사를 PPT 영상으로 제작하여 상영했다. 연출을 대서 대전MBC 아나운서에게 내레이션을 부탁하고, 빔프로젝터는 당시 너무 비싸서 이 또한 연출을 대어 배재대학교에서 무료로 대여했다. 행사 장소는 대전엑스포장 건너편의 평송청소년수련원이라는 대형 신축 건물 대강당을 빌렸다. 지역사회의 많은 인사를 두루 초청해서 행사 서두에 10여 분간 개교 10년사 영상을 상영했다. 내외의 반응은 가히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당시 단위학교에서 그런 PPT 영상 쇼는 아직 생소하던 때였다. 가장 놀란 사람들은 다름 아닌 본교 교사들이었다. 찬사와 시기가 교차하는 가운데서도, 그 일은 본교 교사들에게 첨단기기 활용과 수업 방법 전환에 대한 큰 관심을 촉발시키기에 충분했다.

#### □ 교격 상승의 획기적 전환점을 앞당기다

2000년대 접어들어 대전테크노밸리 개발에 발맞추어 연합배정학교 편입을 위한 학교평가가 여러 해 동안 거듭 있었다. 나는 교무부장 직책을 맡아 매년 학교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원, 장학관, 시민단체 대표, 지역 언론사 기자가 모인 자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다. 이를 위해 주야로 학교에 상주하며 자료준비를 했다. 당시 3대 교장 선생님께서는 간식에 재떨이까지 챙겨주시고 며칠간 교장실을 아예 통째로 내어주셨다. 거교적 여망에 힘입어 2006년 개교 18년 만에 본교는 4개 특수지고 중 가장 후발 학교임에도 맨 먼저 연합배정학교로 편입되었다. 그런데 일부 교사들이 내게 축하 인사를 건네 당황하면서도 기뻐했다. 학교는 축제 분위기였으나, 신입생 학부모의 시선은 여전히 따라왔다. 3년 만에 서울 명문 대학에 다수 합격하자 그때서야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순조로워졌다.

#### □ 교장(校長)은 교종(校從)이다

2008년 9월 만 45세에 홍복을 입어 교감에 임용되었다. 사실 본교는 초대부터 5대 교장까지 교장-교감 사이가 늘 안 좋았다. 나는 이것이 구성원 결속의 최대 걸림돌이라 생각했다. 그 고리를 끊고자 많은 교사들의 불만을 알면서도 항상 교장 편에 서서 충직한 참모로서 예의와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다. 상당수의 교사들이 나를 많이 이해해 주었다. 2016년 9월에 8년간의 교감 직무를 마치고 6대 교장으로 취임하고는 교장의 권위를 내려놓는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운영했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교감과 담당 부장, 관련 위원회에 과감하게 위임하여 자발성, 책임 의식, 성취감을 극대화하도록 돕는 의도였다. 나는 모든 협의 결과를 존중하고 요구사항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기대에 미흡해도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중요한 원칙과 방향만 지켰다. 밖으로는 학부모, 지역사회와 빈번한 만남을 통해 학교를 홍보하고, 교사들에게는 학교 위상과 외부의 긍정적 평가를 자주 피드백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는 데 애썼다. 다행히도 교사들은 저마다 학생과 학교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고 상부상조했다. 수업 연구, 진학 상담, 학교 행사, 학생회 운영, 코로나 대응 등에까지 교장이 지시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모두 자발적이고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나의 교장직 수행은 이들의 역할에 전적으로 힘입은 바에 다름 아니다. 이것이 서번트 리더십의 힘이라 생각한다. 지금 우리 학교는 지역의 학부모들이 앞다투어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는 선망의 학교가 되었다. 학교의 신입생 지원율을 교육청이 보안에 붙여놓아 사실 정확히는 모른다. 다만 660여 학생들의 눈빛과 학부모의 표정, 70여 교직원들의 어깨를 보면서 나는 우리의 위상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

#### □ “남해보물섬고등학교” 교명에 매료되다

바로 지난 8월 말로 4년의 교장 임기를 마치고 정년까지 4년여가 남아 현임교에서 원로교사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 그러던 중 고향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남해에 대안학교가 신설되고 교장을 공모한다는 공고문을 접했다. 첫 눈에 “보물섬”이라는 교명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나는 늘 자라나는 학생들을 “갈지 않은 원석”에 비유했고 이 원석을 “연마하여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는 일”을 교육이라고 말해왔다. 어렵고 힘든 저마다의 사정이 있을 아이들의 가슴 속, 질풍노도가 몰아치는 대해(大海)의 어딘가에 자신만의 보물섬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확신과 더불어 강하게 마음이 이끌렸다. 반항기 충만하던 고향 친구들과 교직 전반기에 만난 사고뭉치 아이들 모습이 스쳤다. 대학입시라는 유일한 목표 아래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 자아 탐구, 삶의 기쁨 같은 것이 구호에 불과한 일반 학교의 현실이 대비되면서 대안학교의 교육 체제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아직 깊은 조예가 없어 적지 않은 난관도 있겠지만, 인생의 묘미는 안 되는 데 있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남다른 제주나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다. 살면서 뭔가 난제를 만나면 나를 시험하듯 상황에 내맡기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았을 뿐이다. 폭풍우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뱃머리를 돌리는 뱃사공을 닮고자 애썼다. 행운이라면 고매한 정신을 지닌 안내자를 가까이 모셨던 일이다. 지위에 대한 욕심도 없었다. 내세울 업적도 상도 없다. 원했다면 약간 받았을지는 모른다. 버리면 얻는다고 했던가? 낯선 신생 사학에 발을 들여서 운이 좋아 젊은 나이에 교감, 교장이란 명함을 품어 보았다. 굳이 업적이라면 현임교 발전의 핵심에 있었다는 점이며, 상이라면 기피 학교를 이이들이 앞다투어 모여드는 학교로 만드는 데 미력을 보탬다는 자긍심이다. 이제 33년 교직 생활에서 미루어 두었던 마지막 숙제를 한다는 마음으로 대안교육에 눈을 돌리고자 함이다. 아이들이 자신의 보물섬을 찾아 항해를 시작할 여기 남해보물섬고등학교가 나의 보물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끝>